



제목	Легенды Турции
발행언어	러시아어
발행처	ЛитРес: Самиздат
발행일	2014.
저자	Анастасия М.Ж.
출판도시	Moscow
페이지수	93
ISBN 또는 ISSN	978-5040540600

내용 요약

『터키 전설』은 터키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유명한 전설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써, 고대서부터 현대까지의 터키 문화와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터키 전설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최초의 서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채록자들은 채록날짜, 장소, 구술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록하였다. 또한 출판을 하면서 그 어떤 교정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터키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터키 전설은 민족 독창성을 지닌 구비문학 자료이다. 현재 터키 지역은 히타이트 제국과 리디아 제국, 아케메니드 왕조, 아르메니아, 실리시아, 알렉산더 마케돈 제국, 셀레우코스 제국, 폰토스 제국, 비잔틴 제국, 롬 셀주크왕조 등 여러 민족들이 흥망성쇠한 역사적 흔적이 남겨져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정복한 민족들은 그 지역의 문명을 파괴하기보다는 자신의 문화와 기존의 문화의 혼합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터키 전설에는 복잡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터키 전설은 Village Institutes가 설립된 194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수집 및 출판되었다. Village Institutes는 터키 문화와 구비문학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소인데, 바로 이곳에서 최초로 구비문학 작품을 수록한 잡지가 발행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구비문학자와 인문학자들이 전설을 수집하고 있다. 이 책은 터키 전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스탄불, 이즈미르, 콘냐, 하타이, 트라즈본, 오르두, 시바스, 우르파, 말라티아, 추쿠르바, 아피온, 카라히사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전설이고, 두 번째 그룹은 «아나톨리아 전설»에 속하는 전설들이다. 이 책의 저자는 터키에 3년 이상 머무르면서 투르크 전설에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들을 연구하였다. 저자는 수많은 전설들 중에서도 특히 다채로운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전설, 성인의 일대기, 그리고 성인의 행적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